

## 이윤이 Yi Yunyi

종속과 반복되는 빛나감은 때로 단어로, 때로 소리로, 그리고 때로 물리적인 운동과 조형적 형태로 구축된다. 시의 함축적 말하기처럼 정제된 그의 작업은 늘 익숙한 상황이지만, 항상 설명에는 실패하고 마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sup>1</sup> 이같은 작가의 활동 스펙트럼은 동시대 횡단하는 사유를 보여주는 영상과 설치 작품들로 잘 드러난다. 그의 작품은 일상과 예술, 종교와 세속, 자아와 타자, 관찰과 성찰, 관계와 소의 등 작가 마음의 진자가 움직이는 진폭이자 자신을 둘러싼 유동적인 세계를 내용으로 한다.

그럼에도 작업에서 주도적인 형식이라면, 소리와 이미지, 장면과 서사가 없었던 적이 없을 만큼 상황적 재현과 언어가 필수적이다. 말하기와 글쓰기, 소리와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가 함께 한 영상이 감각의 겹침, 장소와 기억의 함수 등 다층적 구조로 독해를 시도하게 한다. 《두 번 반 매어진》(인사미술공간, 2014)부터 《메아리》(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17), 《내담자》(아트선재센터, 2018), 《딱 다 살아졌음》(두산갤러리, 2019), 《그의 아버지보다 더 늙은 아들》(두산갤러리 뉴욕, 2021) 등의 전시는 작가의 언어적 재현과 이미지 논리가 시각적 가상현실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상으로 작업한 많은 예들은 화면 속 장면들의 엮임 안에 일상, 예술, 기억, 기록, 동화, 전설, 정보, 꿈, 좌절, 관찰, 시도 등이 함께 등장한다. 무엇보다 영상 속 주체는 이 장면을 주지하게 하는 문장이다. 이미지가 설득력 있는 재현이자 과정을 이어간다면, 언어는 정서와 상태의 표식이자 규정과 태도의 지시문으로 작용한다. 언어와 이미지가 하나의 트랙을 이루어 만들어내는 영상은 그대로 소리 나는 그림책과 같다. 작가의 언어는 소설 지문이다가, 연극 대본이다가, 일기나 기행이 되었다가 시가 되기도 한다. 그 모든 언어 형식이 이미지 궤도에서 자연스럽게 끌려주된다. 언어의 시선이나 표정이 그대로 정서에 감응을 불러일으킨다.

### “돌이 죽었다”와 장면들

올해 이윤이 작가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호흡을 하고 있다. 그간 영상과 설치를 통해 보여주었던 작업과는 다르게 아트북 형식의 책 『오늘 오름』과, 이와 관련된 이미지를 편하게 펼쳐 보인다. 이 책은 제주도라는 장소적 특성과 자신의 경험이 돌, 식물, 연산호, 약초꾼 등 각각의 트리거로 작동되는 계기들과 결합하여 완성된 것이다. 『오늘 오름』은 “돌이 죽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미지와 문자언어의 결합물이다. 「바다목장」, 「식물」, 「삼청공원」, 「돌문화공원」, 「오늘 오름」, 「늦은 지네 이야기」, 「반딧불이 축제」, 「중력과 은총」, 「약초꾼과 아내」, 「연산호와 고라니」, 「물결 위 밀랍」, 「사랑의 죽」, 「무더기」라는 13개 일상과 상상의 혼융(混融) 글이다.

작가의 글은 나카자와 신이치(Nakazawa Shinichi)의 ‘대칭성인류학’의 언어가 파편적으로 떠오른다.<sup>2</sup> ‘유동적인 마음의 작용을 본질로 하는 인간의 마음’과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카자와 신이치는 무의식 영역에서 작동하는 지성의 작용을 ‘대칭성 논리’로 말한다. 유동적인 마음의 기본적인 활동 양상이 바로 ‘대칭성’인데, 세계의 모든 사물의 범주와 체계를 넘어서 연결하는 것, 횡단하는 것이 바로 ‘대칭성 논리’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마음은 합리적인 언어의 구조와 유동적인 마음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대칭성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층이 하나로 결합된 ‘복(復)논리’로 이루어져 있다. 예술은 ‘복논리’의 전형성을 가지며, 이것이 새로운 사유로 나아가게 한다. 이윤이 작가의 텍스트는 유동적인 마음과 철학, 물질, 역사, 신화가 횡단하며 자신의 기록과 기억이 문자를 통한 이미지와 서사, 즉 ‘복논리’로 재탄생하는 시간성 속에 있는 것만 같다.

“내 감각은 처음부터 식물성이었어요 그건 나무 속의 수액들처럼 보호받으며 사는 법이죠 똑똑 병문안을 온 달빛의 눈금을 재며 고백했을 때 알코올 냄새를 풍기는 하얀 손이 스치고 지나가고 화초를 다듬듯 내 머리칼을 잘라주던 그녀의 손은 금방이라도 증발해버릴 것처럼 아찔 했어요”<sup>3</sup>

언어는 소통을 전제하지만, 독자적 표현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인용한 「식물」의 글은 왼쪽에 둥근 달을 원경으로 클로즈업된 붉은 꽃잎의 사진과 오른쪽에 4개 단락으로 구성된 글이 배치되어 있다. 작가의 글은 시작적으로 읽는 문자의 구성물이 틀림없으나 청각, 후각, 촉각의 감각을 불러내어 글 속 행위에 몰입시킨다. 이미지는 글로 인해 더욱 선명한 서사로 유인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머리 위의

### 평론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 중력과 은총, 마음의 작용

어떤 행위이건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무모한 일이거나 의무의 실천이거나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사람이 서 있거나, 다이빙을 하거나, 뛰거나 모두 무엇에 대한 균형을 잡는 일이다. 중력과 같은 균형과 안정을 향해 끝없이 말하고, 웃고, 움직이고, 쉰다. 존재의 방식이자 삶의 지속은 그렇게 균형잡기의 연속이다. 지난 여름 이윤이 작가와 만나던 날, 문득 ‘중력’이 곧 삶의 물리적·정서적 균형이라는 사실을 환기하게 되었다. ‘중력(重力, gravity)’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자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인데, 현재 알려진 자연계의 네 가지 힘 중에서는 가장 약하며, 유일하게 인력만이 작용한다고 한다. 이 같은 개념은 작가의 여러 행위들의 인과관계를 정서적인 혹은 물질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게 한다. 중력은 작가를 통해 인간 행위의 총체적 불안과 결핍이 만들어내는 방어와 극복의 다른 낱말로 다가왔다. 그래서 작가의 움직임은 오히려 깊은 명상을 이끄는 중용의 궤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주도 산양 레지던스에서 팽나무를 내다보면서 작가는 약초를 연구하는 이들과의 만남과 다이빙을 하러 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가의 제주 생활처럼 세계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에 의해 연결되는 순간의 연속이다. 비현실적이거나 초현실적인 제주의 변화무쌍한 하늘처럼 우리에게 작동하는 중력은 은총이거나 중용이거나 생존을 위한 다각적인 균형이다. 작가의 제주에서의 시간은 인간/물질의 중력을 관통하는 터널이다. 작가에게 중력은 ‘은총’이거나 ‘중용’의 언어로 기억되었다.

작가는 “학부에서 시를 공부했고, 밴드의 연주자였고, 영상, 출판, 설치 등의 매체로 작업하고 있다. 시와 음악을 통한 ‘이야기하기’의 소망은 영상과 설치에서도 지속되어왔다. 그는 주로 친구, 동료 등 가깝고도 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작업의 모티브를 발견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의 방식, 각자가 품은 이야기의 일시적 교차, 서로에 대한 임시적인

1 김해주, 《내담자》, 아트선재센터, 2018.  
2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김옥희 옮김, 『대칭성 인류학: 무의식에서 발견하는 대안적 지성』, 동아아시아, 2005 참조.  
3 이윤이, 「식물」, 『오늘 오름』, 2023, 5쪽.

태양은 몰래 모은 알약 뭉치처럼 눈이 부셨다 링거병 안에서 재빨리 광합성을 해대는 포도당들 신호등에서 파리 떼가 녹색 눈을 볼록하게 점화했다 달려드는 저 앰블런스 신호도 무시한 채 터져버린 내 머리의 붉은 꽃<sup>4</sup>으로 마무리한 「식물」은 마침표나 쉼표 없이 끝이 난다. 시의 형식이나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영기는 글이라 어떤 형식으로 묶는다는 게 부질없다. 유동하는 마음과 무의식적 지성의 찬란한 충돌의 순간이다.

## 중력과 은총, 마음의 작용

『오늘 오름』에는 완전히 다른 포맷의 글이 있다. 이전에 삼청공원 숲 해설사가 되고자 했던 시도에 이어 돌문화공원 숲 해설사를 위한 활동도 그에 포함된다. 작가 스스로 숲 해설가로 돌문화공원을 소개하는 내용 중 〈모자상〉 부분은 특히 작가의 눈과 언어로 대중에게 소개하는 형식이라 눈에 띈다. 자신을 숲 해설가와 대칭적 존재로 교차하면서 스스로 발굴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둥근 바위가 웅크리고 앉아 작은 바위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모자상’이라고 옆에 표지석을 세워주니 영락없이 바위는 위대한 어머니와 아들이 됩니다. 이름이 형상을 결정짓습니다. 이렇게 안고 포옹하는 한 광물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중 아들 하나로 연결됩니다. ...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돌은 없습니다. 돌은 깎이고 마모되고 구르면서 시간의 흔적을 응결한 입체입니다.”<sup>4</sup>

이 글은 신화 속 설문대할망을 모성의 보편성과 신성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 주며, 동시에 돌의 생성 시간을 새삼 일깨운다. 모든 문장은 관객으로서의 자신과 해설가로서의 자신에게 읽히거나 낭송된다. 이러한 작가의 여정은 2023년 9월 20일이라 기록하고 있다. 역사와 유물 그리고 신화에서 횡단하는 사유와 정서를 마주하는 대칭적인 존재로서의 기록이라면, 「오늘 오름」의 경우는 사적인 상황 속에서 교차적으로 만나지는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존재란 상대적으로 의미를 생성하고, 언어는 관계를 위한 위치와 지향의 논리로 구성된다.

“산양꽃 분들을 마주칠 때마다 텃밭에 대해 질문한다.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감추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다는 배려. 널린 게 땅이고 상추고 쑥갓인데 뭣하러 허브며 모종을 사려

하냐고, 작업실에 있다가 심심하면 나와 거름이랑 물이나 주라고...내가 하는 일도 이런 효용이 있으면 좋겠어. 네가 하는 일은 이런 결일 거야. 카톡으로 친구를 위로하며, 이별을 앞둔 지금 내 상황도 하나의 우화처럼 기억되길.” 4월 23일로 기록되는 「오늘 오름」의 내용이다. 알고 보면 늘 지극히 주관적인 행보이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 문장으로 공유되며 형상화되는 작가의 시선이 오롯이 부각된다. “몸서리치는 모습들이 한결같고, 머리인지 꼬리인지 빨간 집게와 검은 외피, 여러 개의 누런 다리가 마치 독일 병정 같았다고.” 「늦은 지네 이야기」는 5월 21일 일기로 제주의 애기 해너 다크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다치지 말기를, 지치지 말기를. 나에게도 그녀에게도 응원한다”로 마무리한다. 자신을 보듬는 시선이 자가를 비추는 애기 해너의 거울에 비춰진다. 자연물이나, 물질이거나, 관계이거나 작가의 행위와 시선은 일련의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성찰적 세계로 향한다.

이어 「반딧불이 축제」에서 “가능할 수 있는 공통의 감각이라는 게 과연 있나. 너의 온라인은 우리 관계의 불안함보다 더 가깝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고 사랑일 수도”라는 질문과 현상의 진술을 발견하게 한다. 실제로 작가는 때때로 바다로 나아가 다이빙을 하며 дай버의 삶과 세계를 접하기도 하였다. 한 번씩 만나는 약초꾼과 물질 생태계를 탐색하였다. 이전의 영상 속 활약 주체가 현실에서 사건과 만나고 탐구하는 일련의 상황이 그대로 작가의 행위로 구현되는 듯하다. 작가에게 한 줄 문장과 한 단어는 사유의 지표이자 행위의 지문이다. 즉 문자와 이미지는 주체의 구성과 행위의 재현 체계를 이룬다. 두 축의 작동으로 작가만의 재현 체계는 견고한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의 압박을 스스로 허용하기.  
주체를 세우고 깨진 상태를 마주하고  
겸손하고 상냥하며 솔직해질 것.  
말은 줄이고 미소는 늘리고 늘 움직일 것.  
...  
왜 화가 나 있는지 실체를 보기.  
이유를 들어주고 스스로 돕고 일으키기.  
...  
멀리 켜켜 짚는 들개처럼.  
긴 장마 끝 열과 성을 다해 우는 매미처럼.”<sup>5</sup>

작가의 중층적 사유와 내면이 드러난 텍스트다. 작가는 분명히 “중력과 은총. 내려가는 힘과 고양하려는 힘”이라

적으며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무엇보다 유동적인 마음과 균형의 핵심적인 힘이 바로 중력이다. 중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은총일 수 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 힘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세계를 이루는 물질과 식물, 동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력의 작동은 마찬가지다. 「약초꾼과 아내」라는 텍스트는 담담하게 식물과 연계된 세계를 확인시키며, 서로 닮고 연결된 지구촌 생태계를 상기시킨다.

“식물은 평생 고정된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호르몬을 통해 교감하고, 고도로 발전된 군사로 연결된 뿌리 네트워크를 이루고 산다는데, 저분은 어쩌면 오래 식물을 찾고 들여다보고 캐고 으깨고 추출하면서 식물에 가까운 감각 기관을 기르신 것만 같다.”<sup>6</sup>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을 느끼는 것이란 감각적이고 생태적인 존재 인식의 문제다. 약초꾼이 식물 감각의 존재처럼 보이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하늘, 바다, 산, 들, 대지의 생명과 물질은 원천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자 서로에게 무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산호와 고라니」는 제주의 생태를 바다와 육지의 두 동물에 대한 단상으로 텍스트화하고 있다. 바다동물 연산호는 태어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축수로 세계를 감각하는데, 최근 기후 위기로 돌산호로 대체되어간다는 사실을 짚어내고 있다. 언어를 통해 증언하는 사실은 스스로에게 읽히는 일차적 텍스트로 객관화되곤 한다. 「물결 위 밀랍」에서 “...물이 듣는다 코를

움켜쥐고 나를 민 건 나지 양수에서부터 스크 줄도 놓았지 중력에서부터...” 유동적인 마음뿐 아니라, 유동적인 자연 환경, 유동적인 삶의 세계에 존립을 들추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 불안과 결핍은 태생부터 가진 환경인지도 모른다. 특정한 자본이나 권력 또는 사물과 관계없이 의식과 무의식을 작동시키는 무수한 존재들 간의 불화와 불협도 저변에 가득하다. 그런 상황에 존재한다는 것은 일련의 수축과 이완의 관계망이 조밀하게 작동한 덕분이다. 그것이 균형이고 중력의 작용이다. 우리는 중력의 은총 아래 존재한다. 물질/비물질, 생명/비생명의 존재 모두 유동적인 환경 안에서 싹틔듯처럼 상호 연결된 생태계에 존립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 있으며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 대칭성이란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작가의 모든 순간은 자신과 대칭적 상황의 존재론적 만남과 부침의 연속이다. 제주 생활은 텍스트에서 드러나듯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영역들과 내밀한 사건으로 재연결되는 시간이다. 중력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를 지탱시킨다. 중력의 시간에서 작가에게 문자가 논리적 사유와 사건의 시각을 규정하는 고리라면, 이미지는 이를 확장하는 물속 거울이다. 지금, 작가는 다시 메아리를 거울에 비추는 시간을 맞이하는 중이다.

4 이윤이, 「돌문화공원」, 『오늘 오름』, 2023, 11-12쪽 참조.  
5 이윤이, 「중력과 은총」, 『오늘 오름』, 2023, 27쪽 참조.  
6 이윤이, 「약초꾼과 아내」, 『오늘 오름』, 2023, 34쪽 참조.

CRITIC

Park Nam-hee Director of  
Nam June Paik Art Center

## GRAVITY, GRACE, AND THE WORKINGS OF THE MIND

With any action, there is a cause. Whether it is reckless or dutiful, there is always a reason behind it. Standing, diving, or running all involves a balancing act. We talk, laugh, move, and rest, as if to strive towards balance and security of gravity.

The balancing act is our way of existence and reason to persist in life. Last summer, meeting Yi Yunyi gave me a sudden realization that “gravity” may be the cause for physical and emotional balance in life. Gravity is a force between two things that

have mass and the universal gravitation between all particles with mass. With a gravitational pull as the only force, it is the weakest of the four forces currently known in nature. This concept allows us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Yi's various activities as an emotional or material process. For the artist, gravity is another word for a defensive mechanism, an overcoming of a general anxiety and deficiency stemming from human actions. As such, Yi's act could be a trajectory of the Golden mean leading to a deep meditation.

Looking out at the Hackberry Tree at Sanyang Residence in Jeju, Yi shared stories about meeting medicinal herb researchers and going diving. Like her life in Jeju, the world is a series of moments where different realms are connected through life. Gravity is like the dynamic and unrealistic or surrealistic sky of Jeju. It is either grace, Golden mean, or a multifaceted balancing act for survival. Yi's time in Jeju can be described as a tunnel penetrating the gravity of humans and things. For Yi, gravity is to be remembered as "grace" or "Golden mean."

Yi "studied poetry in undergraduate school and was also a member of a band. Currently, she works with video, publishing, and installation. Her desire to 'tell stories' through poetry and music permeates in her videos and installations. The motif of her work derives from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colleagues, both close and distant. The way of forming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the momentary intersection of individual narratives, temporary dependence or repeated amiss are sometimes reconstructed into words, sounds, and sometimes through physical movements and sculptural forms. I am familiar with the refined disposition of her work, which reflects the implicit speech of poetry, but this time, the work made me linger on the persistent failure in describing my relationships with others."<sup>7</sup> The wide spectrum of Yi's activities is visible in her videos and installation works. It reflects the traversing thoughts within contemporary times. Surrounded by the fluidity of the

world, Yi's work reflects the amplitude of her mind's pendulum that moves between daily life and art, religion and the world, self and others, observation and reflection, relationships and alienation.

Nevertheless, situational representation and language are essential parts of Yi's work, where sound and image, scenes and narratives have never been absent. Overlapped sens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memory appear in her video as in a multi-layered structure through text, speaking, writing, sound and image, which calls for the viewer's interpretation. Her past exhibitions such as *A Round Turn and Two Half-Hitches* (Insa Art Space, 2014), *Hearts Echo Like Mercury*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2017), *Client* (Art Sonje Center, 2018), *All Survived* (Doosan Gallery, 2019), *A Son Older Than His Father* (Doosan Gallery NY, 2021) reveal how Yi can visually create virtual reality through speech representation and logic of image. In many of her videos, the scenes of daily life, art, memories, records, fairy tales, legends, information, dreams, frustration, observations, attempts, etc, are woven together. But most importantly, the subject of the video is a sentence that makes us aware of the scenes. While images are persuasive representations that continue the process, language acts as both a marker of emotions and state of being, and a command for order and position. With language and images placed into one track, video is like a picture book read out loud. Yi's writing shifts its tone from a novel, a play script, a diary, a travel log, and a poem. Needless to say, all these linguistic forms are collaged onto the image orbit, and the gaze or expression of such language evokes an emotional response.

#### "STONE DEAD" AND OTHER SCENES

This year, Yi Yunyi is enjoying a new life in Jeju. Unlike her previous video and installation works, she presents what appears to be an art book, "Gravity

toward the Island", and related images. The book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with her experiences triggered by stones, plants, soft corals, and herbalists. "Gravity toward the Island" is a combination of images and text, beginning with the sentence "Stone Dead(Completely Lifeless)." With 13 essays titled, "Marine Ranchings," "A Neomort," "The Samcheong Park," "The Jeju Stone Park," "Today's Oreum," "A Late Centipede's Story," "The Firefly Festival," "Gravity and Grace," "An Herbalist and His Wife," "Soft Corals and Water Deers," "A Beeswax on the Waves," "A Porridge of Love," and "In a Muddle," it is a melting pot of daily life and imagination.

Yi's writing reminds me of Shinichi Nakazawa's "symmetrical anthropology."<sup>8</sup> Nakazawa connects "the fluid human mind" with the rational structure of language. He explains the unconscious workings of the mind through the concept of symmetry. "Symmetry" is at the basis of the fluid mind, and symmetric logic is what connects and transcends categories and systems of all objects in this world. Nakazawa states, "the human mind is a synthesis of two layers: one working according to the rational module of language to create asymmetric logic, while the other is the fluid, an essential feature of the modern human mind, which creates symmetric logic. In short, the human mind is 'bi-logical.'" Art is a typical form of "bi-logical"<sup>9</sup> thinking that propels new thinking. Yi Yunyi's writings exist in such temporality in which the fluid mind, philosophy, material, history, and mythology traverse, and where images and narratives of personal archive and recollections are renewed through the "bi-logic" thinking.

"From the beginning, I possessed vegetative senses. Like the sap in a tree, it's a way of survival. Sounding the marks made by moonlight who came to inquire after my health, I confessed. A white hand with a scent of alcohol brushed past me, and I felt dizzy imagining the unforeseen disappearance of her hand who trimmed my hair like a flower."<sup>10</sup>

Language presupposes communication, but the world of unfettered expression is immeasurable. In "A Neomort," where I took the quote, you see a close-up photo of red petals with a distant image of a round moon on the left side, along with four paragraphs of text on the right. Text is undoubtedly composed of characters that are comprehended visually, but Yi's text also summons other senses such as hearing, smelling, and touching, inducing an immersive experience. The text also assists the images to embody a more distinct narrative. "A Neomort" ends with, "... The sun above my head was dazzling like a bunch of pills collected in secret. Glucose photosynthesizing quickly in an IV bottle. At a traffic light, a swarm of flies lit up their green eyes. A red flower on my head exploded, ignoring the approaching signal of the ambulance," without a period or comma. Though it takes the form of a poem, many entangled stories within the text makes it impossible to categorize it. It is a brilliant moment of collision between the fluid mind and unconscious intelligence.

#### GRAVITY, GRACE, AND THE WORKINGS OF THE MIND

In "Gravity toward the Island", Yi reveals a completely different kind of writing. As a continuation of her past attempts to become a forest guide for Samcheong Park, she shares in the book her attempt to become the forest guide for Jeju

<sup>7</sup> Haeju Kim, *Client*, Art Sonje Center, 2018.

<sup>8</sup> Shinichi Nakazawa, *Symmetrical Anthropology: Alternative Awareness from the Unconscious*, Translated by Okhee Kim, East Asia, 2005.

<sup>9</sup> Schneider, Arnd. "Shinichi Nakazawa in conversation with Arnd Schneider." *Alternative Art and Anthropology*. Taylor & Francis, 2017, pp. 65-74.

<sup>10</sup> Yi Yunyi, "A Neomort", *Gravity toward the Island*, 2023. pp 5.



Stone Park. Amongst the explanations of Jeju Stone Park as a forest guide, her personal account of the “Mother and Child Statue” stands out in particular. By adding her own interpretation and discoveries, Yi positions herself as a symmetrical being with the forest interpreter.

“A round rock is crouching down to embrace a small rock. Here’s a sign that reads, ‘Mother and Child Statue.’ This rock surely is a great mother and her son, as the name determines the form. A rock with such an embrace could only be Seolmundae Halmang and her son, one of the five hundred generals.... No stone is created out of nowhere. A stone is a three-dimensional object that congeals traces of time, cracking, eroding, and tossing.”<sup>11</sup>

The text reminds us of Seolmundae Halmang’s motherhood that is sacred and universal, while evoking the annals of time for the stone to have come about. Every sentence is read or recited for the artist herself both as the audience and guide. The date is marked as September 20, 2023. If this is a record of a symmetrical being encountering her thoughts and emotions traversing through history, relics, and mythology, “Gravity toward the Island” highlights the crossing of oneself in a personal situation. Existence creates meaning in relativity, and language is composed of logic in one’s positioning for a relationship.

“Every time I meet Art Lab Sanyang staff, I ask them about the garden. Concealing the desire to possess, showing consideration that I don’t crave those that belong to others. Why do you want to buy herbs and seedlings when you already have land with lettuce and crown daisy? If you get bored in the studio, come out and give them some fertilizer and water... I wish my work also carries such utility. Your work means such and such. Comforting a friend through KakaoTalk, I hope that my current situation, soon to be faced with a parting, will also be remembered

like a fable.” Written in “Gravity toward the Island”, on April 23rd. Here, the perspective of an artist is solely emphasized, where her personal action and objective self-reflection is shared and visualized as sentences. “Trembling consistently, the red pincers, black skin, and several yellow legs, either head or the tail, looked like a German soldier.” This dairy is from May 21st titled, “A Late Centipede Story.” It recalls a documentary about Jeju’s young haenyeo (female divers). The entry ends with, “Don’t hurt yourself, don’t tire yourself. A comforting message for her and myself.” A self-caring gaze is reflected in the mirror of the young haenyeo. Whether it be a natural object, matter, or relationship, Yi’s actions and gaze are directed towards the introspective world through a series of words and images.

In “The Firefly Festival” Yi writes, “Is there such a thing as a common feeling that is measurable? Your online may be closer, more realistic, stable, and loving than the uncertainty of our relationship.” This is her statement of question and phenomenon. Yi, as a matter of fact, sometimes went to the sea to dive, experiencing the life and world of divers. She explored the ecosystem and conversed with herbalists whenever she bumped into them. It is as though Yi has embodied the subject from her previous video who finds herself in a series of situations in reality, coming across events that lead to new explorations. For Yi, a single sentence or word is an indicator of thought and a fingerprint of action. In other words, letters and images frame the subject’s constitution and build the representation system for their actions. Yi’s unique representation system, operating with just these two axes. enables meaningful readings.

“Allow yourself to be under the pressure of time.  
Awaken the subject, face the broken condition,  
Be humble, kind, and honest.  
Talk less, smile more, and don’t stop moving.  
...  
Observe the real reason why you are angry.

Listen to your reasons, help yourself, and lift yourself up.  
...  
Like a wild dog barking in the distance.  
Like a cicada crying with passion at the end of a long rainy season.”<sup>12</sup>

This text reveals the artist’s multi-layered thoughts and inner being. She clearly writes a message to herself, “Gravity and grace. The power to fall and the power to rise up.” Above all, gravity is the core force of fluid mind and balance. Having gravity can be a blessing in itself. Not falling means that your energy has been retained. Gravity operates in the same manner for our relationships with materials, plants, and animals that make up our world. With tranquility, the text, “An Herbalist and His Wife,” reasserts the world of plants, reminding us of the network of global ecosystems that echo one another.

“Plants are known to communicate through hormones, overcoming the obstacle of having to live in a fixed location throughout their lives. They also live amongst a network of roots connected by highly developed hyphae. Those who spent such a long time searching for plants, examining them, digging, crushing, and extracting from them must have developed certain senses of the plant.” Grasping humans as part of nature is a matter of sensuous and ecological approach to existence. It is no wonder that herbalists appear to possess the senses of the plant. The life and matter of the sky, sea, mountains, fields, and earth are fundamentally closely interconnected, influencing one another. “Soft Corals and Water Deers” textualizes Jeju ecology through the two species of the sea and land. Soft corals are marine animals that root in their birthplace. They sense the world with tentacles. The text points out that due to the recent climate crisis, they are being replaced by stone corals. Written testimonies are considered an objectified primary text to be read to oneself. In “A Beeswax on the Wave” Yi writes, “...The water is listening. I hold my nose tight. It was me that

pushed me. Sliding from the amniotic fluid. I let go of the rope. From gravity...” The existence is discovered not only from a fluid mind, but also from a fluid natural environment and a fluid world of life.

We are all imperfect and insecure. Anxiety and deficiency may be the environment we are born into. Regardless of particular capital, power, or objects, the world is filled with discord and dissonance created amongst countless beings in their conscious and unconscious. The fact that one is in such a circumstance means that a series of contraction and relaxation of the network is in operation. That is the gravitational act of balance. We exist under the grace of gravity. Material/immaterial, life/non-life all exist in an ecosystem interconnected like thread veins of a fluid environment. We are imbued with each other and exist through each other. Without borrowing the word symmetry, the artist’s every moment is a series of ontological encounters and fluctuation within a symmetrical situation. As revealed in her writings, Yi’s life in Jeju was a time of reconnection with distant realms through a series of intimate events. Gravity sustains us physically and emotionally. In the time of gravity, if Yi’s letters are the ring that sets logical thinking and a perspective of an event, images are the underwater mirrors that expand them. Now, once again, Yi Yunyi welcomes a time to reflect echoes in the mirror.

11 Yi Yunyi, “The Jeju Stone Park”,  
*Gravity toward the Island*, 2023, pp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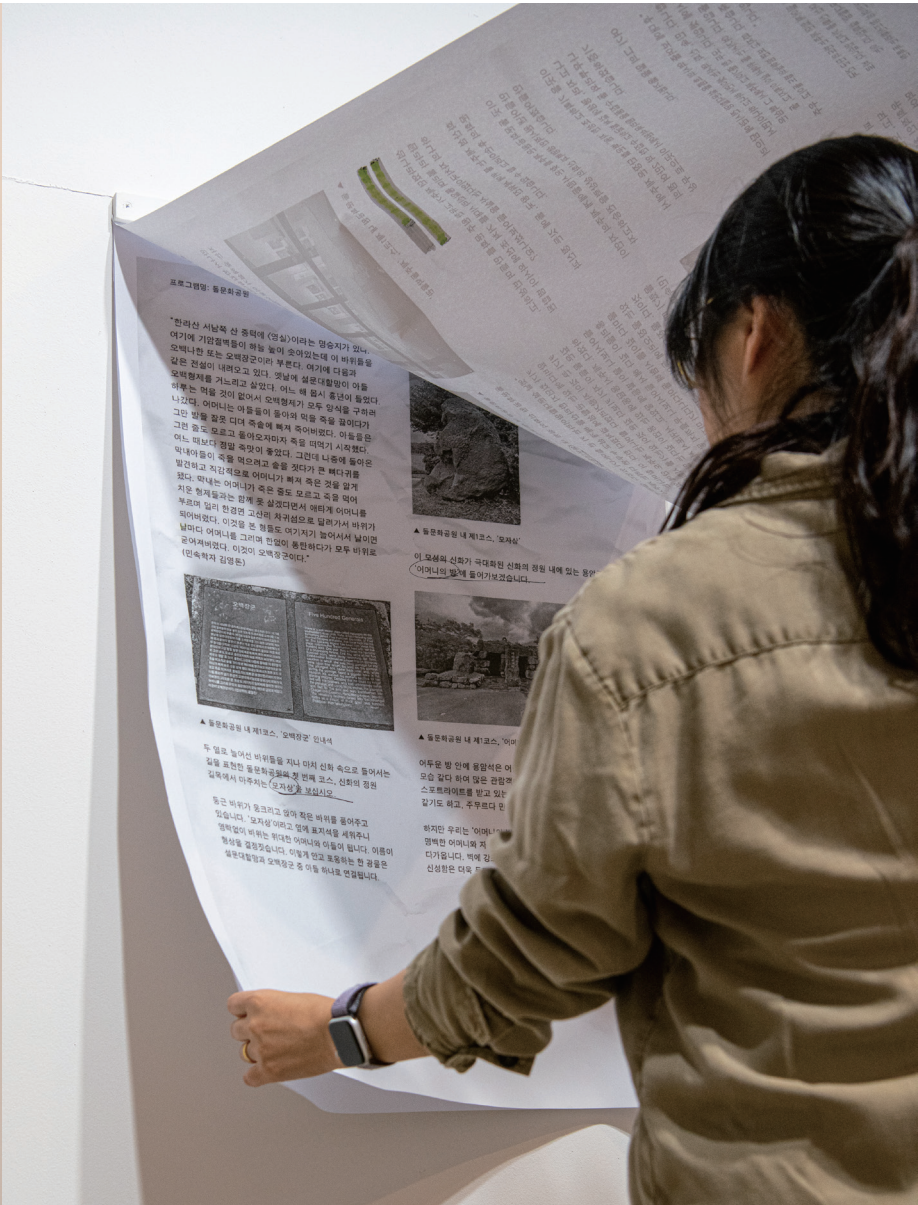
12 Yi Yunyi, “Gravity and Grace”,  
*Gravity toward the Island*, 2023, pp. 27.



Gravity toward the Island 2023, 8 digital prints, 61.5×88cm each











오늘 오름 2023, 아티스트 북, 180×240mm (60p)

